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

| | |
|----------|-----|
| 의안 번호 | 337 |
|----------|-----|

발의년월일 : 2008년 5월 19일

발 의 자 : 김재경 의원 외 6인

1. 주 문

-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최소 투자로 최단 기간에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성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가. 국가의 정책사업 목표에 적합하고, 기술혁신 역량 및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나. 그 당위성으로 충청권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전국 최고의 R&D기능과 생산·비즈니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의 최대 집적지역으로써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적의 장소임.
- 다.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함.
- 라. 충청권은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국토의 중심지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산업기능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생산 및 교역중심지로 등장하는 등 국제비즈니스에 적합한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공약사항 중의 하나로, “대덕특구 + 행정도시 + 오송·오창”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을 통해 충청권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여 세계 5대 과학기술 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렇듯 국가와 지역의 미래 사활을 결정하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장 최적의 장소에 구축되어야 하며, 동시에 최소투자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 당위성으로는

첫째, 충청권은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지역으로써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들을 유치하는데 매우 유리한 지역입니다. 충청권은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행정도시, 오송·오창산업단지 등에 IT, BT, NT, 의료 등 첨단지식 산업분야의 R&D 기능과 생산, 비즈니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산업의 최대 집적지역으로써 세계적인 기업들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여 사업화하는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둘째,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고급인력들이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에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1시간 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등 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지역입니다.

셋째, 충청권은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국토의 중심지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산업기능 지원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충청권은 서해안 개발의 연계축으로 중요성을 지니고 있고, 수도권의 거대 도시축과 경부축, 호남축을 잇는 간선교통축의 중앙에 입지하여 도시개발 및 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새로운 국제생산 및 교역 중심지로 등장하는 등 국제비즈니스에 적합한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덕특구의 우수한 R&D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최소 투자로 최단 기간에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충청권에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지역별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적극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충청권은 파워-존(Power-Zone)으로써 대한민국의 성장축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서북권벨트 추진을 통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에 대한 밑그림과 추진 실체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어 지역간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사업추진에 대한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간 불필요한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당초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조속히 발표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부처장관들은 국가의 정책사업 목표에 적합하고, 기술혁신 역량 및 경제성 측면에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여 행정도시 건설과 대덕특구 육성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건의 드립니다.

2008. 5. 2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촉구 건의안

찬성의원서명

[illegible]

수 신 처

1. 대통령
2.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3. 국무총리
4. 국무총리실장
5. 기획재정부장관
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7. 지식경제부장관
8.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9. 국회의장
10.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11.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12. 한나라당 대표
13. 통합민주당 대표
14. 자유선진당 대표